

# numbers 제 122호



## 주요 내용

2021.12.03

1. 이번 주 주제 : [새신자 조사2]  
새신자의 믿음을 갖게 한 최대 요인, 성경공부!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 이후 미국 목회자 상황]  
미국 목회자 38%, 지난 1년간 '전임 목회 그만둘까 고민한 적 있다'
  - [세계 9개국 환경 인식 조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62%!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기독교 통계

# 새신자의 믿음을 갖게 한 최대 요인, 성경공부!

지난 주 넘버즈 121호는 '새신자의 교회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가운데 새신자가 전도자와 접촉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 출석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새신자들은 통념과 달리 전도받기 전까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교회 출석 무렵에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즉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 상황은 다양해서 새신자의 고민을 듣고 나서 전도자로부터 교회에 가자고 권유를 받은 상황부터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권유받은 상황까지 다양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도를 할 때는 새신자의 상황과 고민에 대한 공감과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신자가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넘버즈 122호에서는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과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새신자의 믿음 형성과 교회 생활을 다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새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으며, 그들이 교회를 찾아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전도의 열정을 되살리고 전도 전략을 정교화하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2호는 지난 주 121호에 이어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최근 5년 이내 남녀(새신자)
- 조사 지역 : 전국
-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 총 458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 무작위 추출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6%p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 2021년 8월 20일 ~ 9월 13일(25일간)
- 조사 의뢰 기관 : 한국교회탐구센터
- 조사 수행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본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한국교회탐구센터의 ‘교회탐구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새신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모든 발표 내용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의 「11차 교회탐구포럼 자료집」에 실려 있다.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141&wr\\_1=](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141&wr_1=))

※ 포럼 발표 동영상은 유튜브에 3편으로 나뉘어 업로드 되어 있다.

- 정량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gaGxNyifCHY>
- 정성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xPoZ8TmbXc0>
- 패널토의 : <https://www.youtube.com/watch?v=U4iJSsZgj1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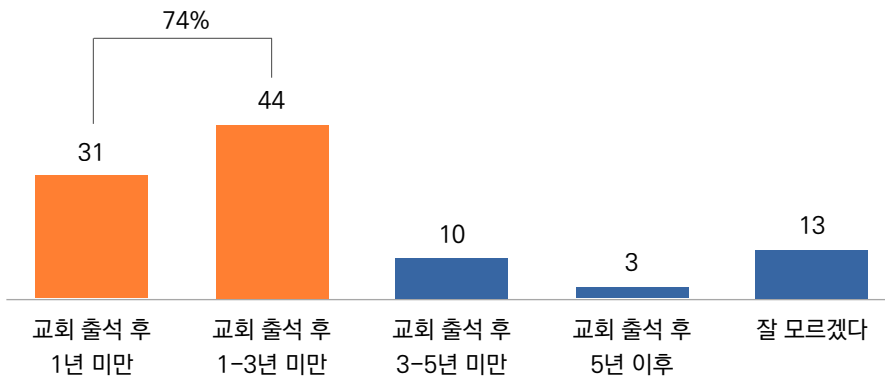
1



##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믿음이 생기는 기간, 3년 미만 74%

-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새신자들은 교회 나온지 '1년 미만' 이라는 응답이 31%, '1~3년 미만'이 44%로 이 둘을 합하면 교회 출석 후 3년 미만에 믿음이 생겼다는 응답이 74%였다.
- 이 결과로 보면 새신자가 교회에 온 후 1년 동안은 초강력 돌봄, 3년까지는 강력 돌봄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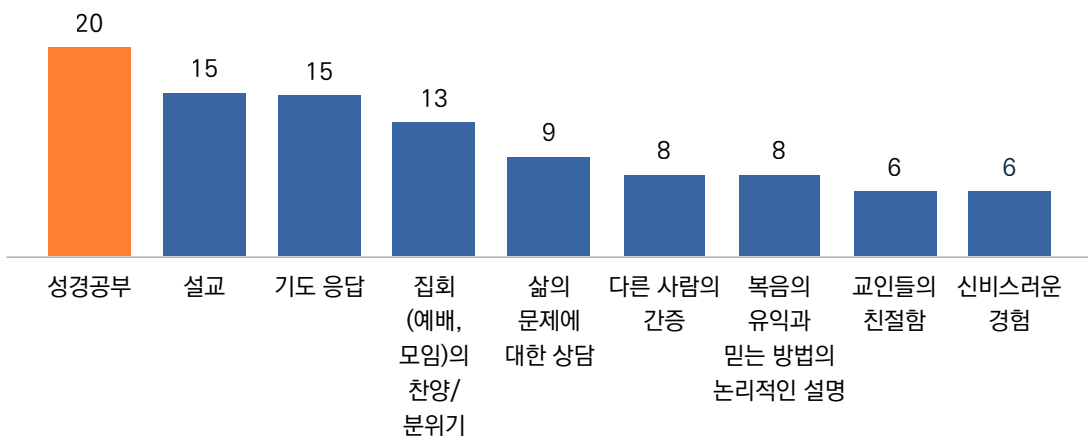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한 기간 (%)



## ● 믿음을 갖게 하려면? 성경공부가 제일 중요!

-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특효약은 없다.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새신자들은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20%)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설교'(15%), '기도 응답'(15%)이었다.
-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설교 및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 체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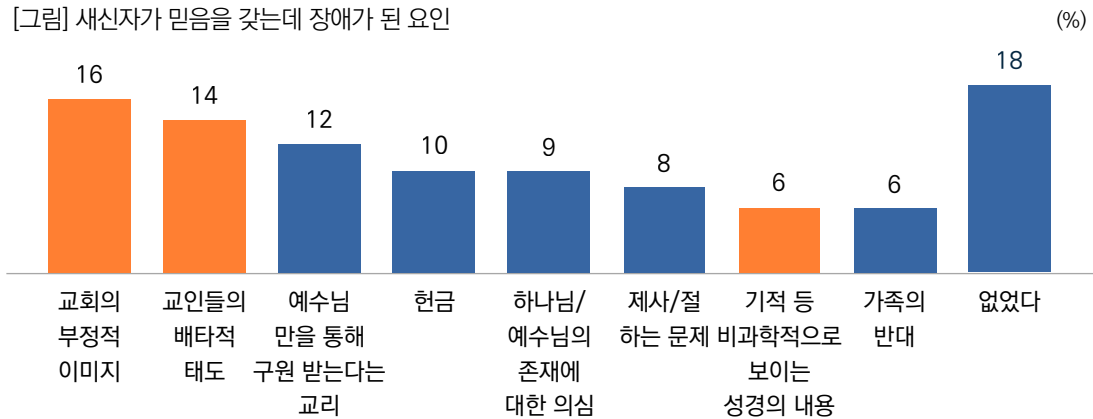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 요인 (%)



## ● 믿음을 갖게 하려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 그러면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일까?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16%)와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14%)이다.
-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교회의 대외적 요인이고,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는 교회의 대내적 요인인데, 이 두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을 치우는 길이다.
- 초과학 시대이지만 의외로 ‘기적 등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성경의 내용’은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닌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림]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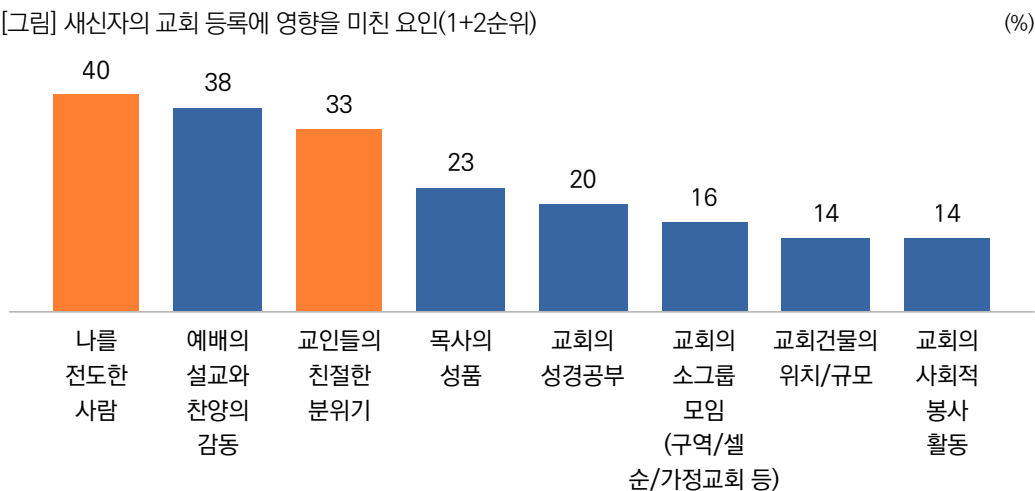
## 2



##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예배 요인 보다는 인적 요인 영향이 더 커!

-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공부’와 ‘설교’, 그리고 ‘기도’가 영향을 미쳤다면, 교회 등록에는 ‘예배’(38%)도 중요하지만, ‘나를 전도한 사람’(40%)과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33%)와 같은 인적 요인이 더 중요했다.
- ‘전도자’는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 돌봄을 그치지 말아야 하며, 새신자에 대해 온 교우가 환영하고 관심을 표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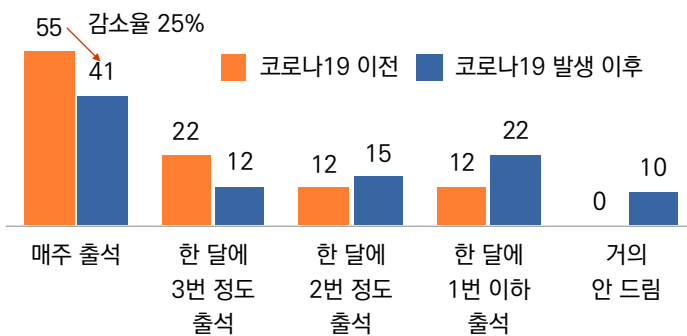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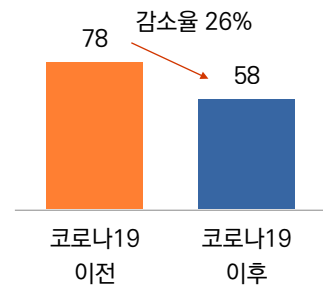
## 새신자, 코로나19 전후에 '매주 예배드리는' 비율 55% → 41%로 낮아져!

- 새신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비율(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 포함)이 41%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25%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개신교인 감소율(20%P)과 비슷한 비율이다.
- 특히 '거의 안 드린다'는 비율이 10%나 된 것은 주목할 결과여서 각 교회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림] 새신자의 주일 예배드리는 빈도  
(온라인 예배 포함, 코로나19 전후 비교)



[참고] 개신교인 전체 주일예배 '매주 출석' 비율\*  
(온라인 예배 포함, 코로나19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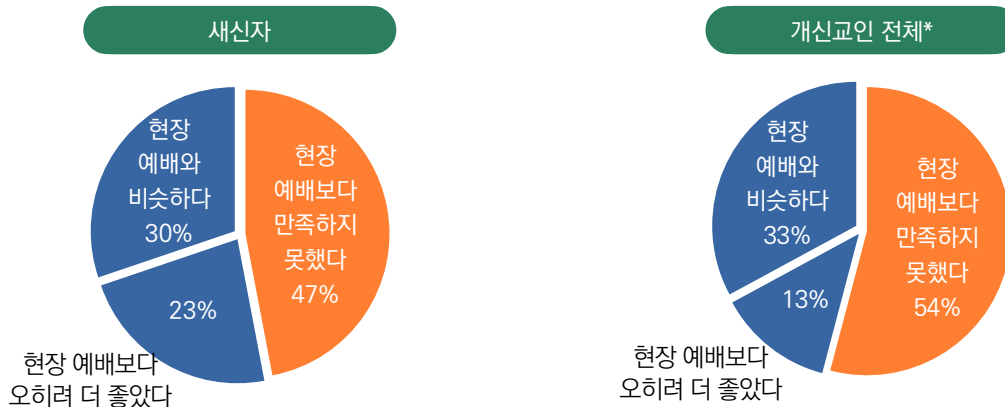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 ● 새신자, 개신교인 전체보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 더 높아!

- 새신자의 경우 온라인예배를 드렸을 때 현장예배와 비교하여 온라인예배가 '현장예배보다 좋았다' 23%, '현장예배보다 못했다' 47%였다. 전체 개신교인 조사에서 온라인예배가 '현장예배보다 좋았다' 13%, '현장예배보다 못했다' 54%인 것과 비교하면 새신자의 온라인예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새신자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행동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그림] 현장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온라인 예배자 대상)



\*자료 출처 :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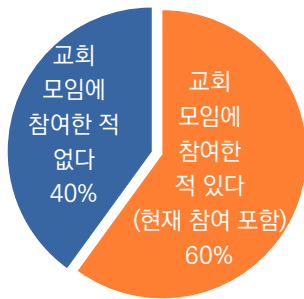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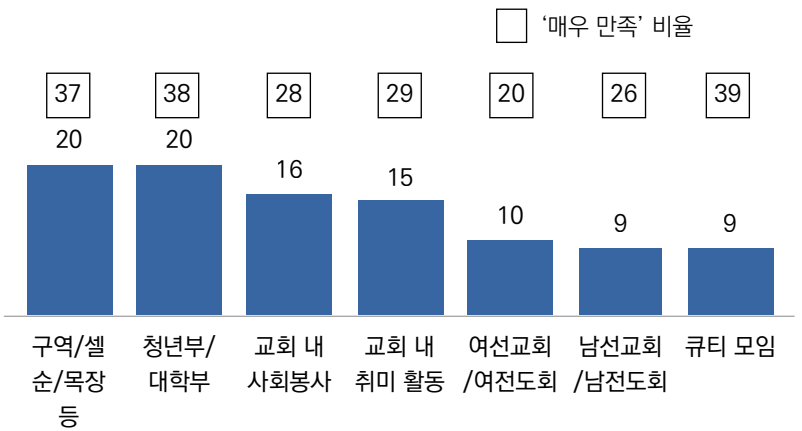
## 가장 만족도 높은 교회 내 모임 ‘구역/셀/목장 등 소그룹’과 ‘큐티모임’!

- 새신자의 60%는 교회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서, 새신자의 교회 정착에 소그룹 모임 참여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 참여 모임별 ‘매우 만족’ 비율을 보면, ‘구역/셀/목장 등 소그룹 모임’과 ‘큐티 모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연령대 모임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년대학생들은 동질적인 모임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 모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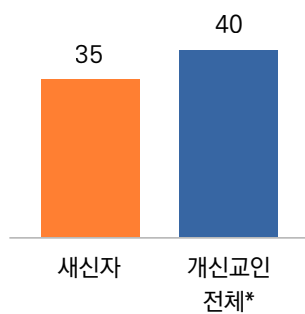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의 교회 모임별 참여 경험율(현재 포함) 및 ‘매우 만족’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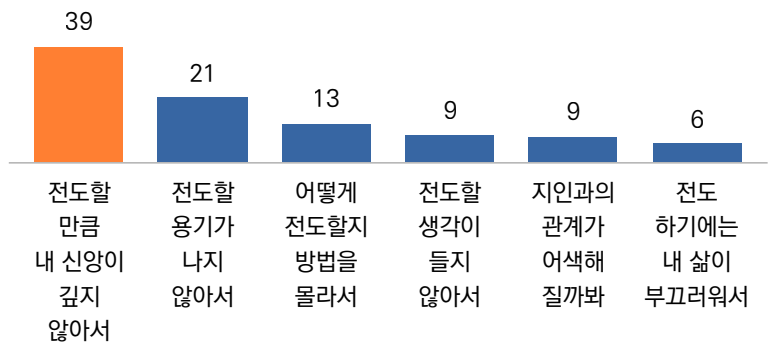
### ● 새신자도 전도한다, 35%!

- 새신자라고 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변해서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게 되는데, 그 경험률은 35%였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 개신교인의 전도 경험이 40%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새신자의 전도 경험 35%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도한 경험이 없는 새신자들은 ‘전도할 만큼 내 신앙이 깊지 않아서’(39%)를 전도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했다. 또한 ‘전도하기에는 내 삶이 부끄러워서’가 6%였는데, 이 응답 모두 자신이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전도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전도 경험



[그림] 전도하지 않은 이유(새신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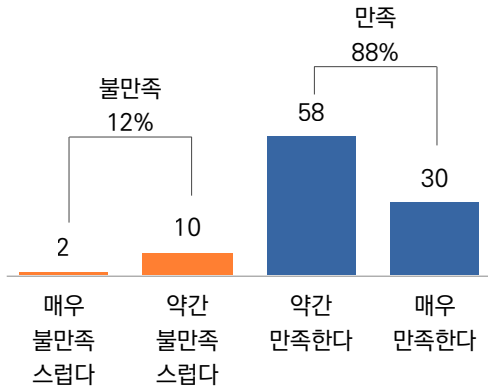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2018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2018.01.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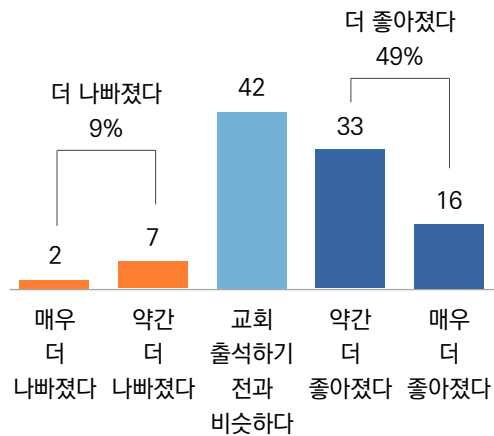
## ● 새신자의 출석 교회 만족도, 88%

- 현재 출석 교회에 대해 대부분의 새신자(88%)가 만족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교회 출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교회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49%였고 ‘나빠졌다’는 9%여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새신자 가운데 교회 이미지가 좋아진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새신자의 출석 교회 만족도 (%)



[그림] 교회 출석 후 교회 이미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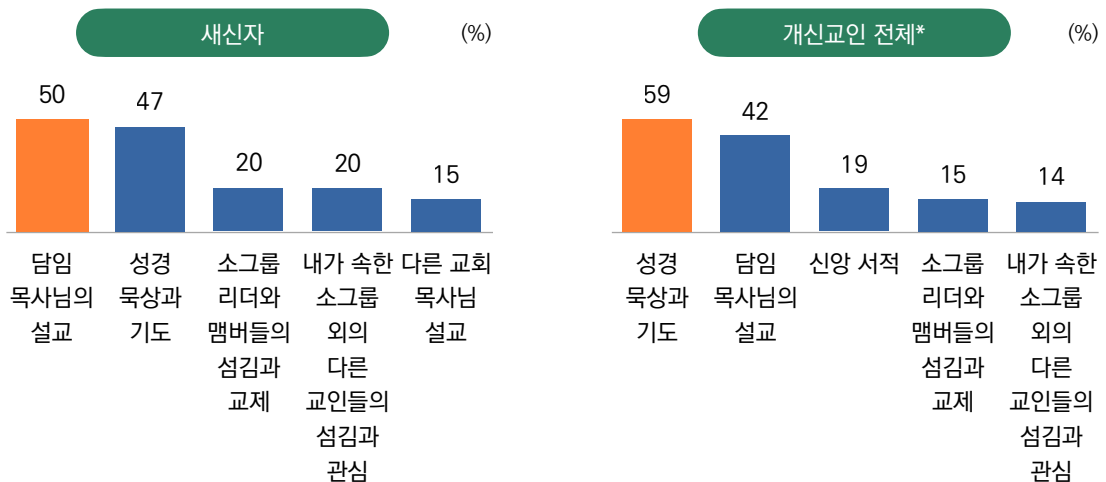
## 5



##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의 신앙생활 도움, 담임목사 설교 영향이 가장 커!

-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는 ‘담임목사님의 설교’(50%)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으며, 또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20%)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개신교인 전체에서는 ‘성경묵상과 기도’(59%)와 함께 새신자에서 6위로 조사된 ‘신앙 서적’이 3위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전체 개신교인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묵상과 기도’ 및 ‘신앙 서적’ 등 개인적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새신자는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해서 예배 참여와 더불어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받은 것(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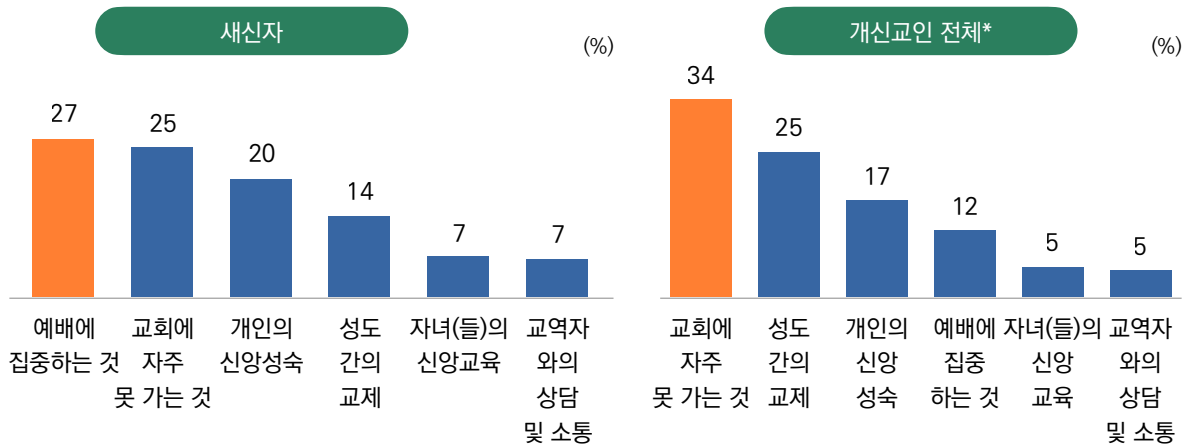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 ●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의 신앙생활 어려움 1위, '예배 생활'!

-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새신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27%)과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25%)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체 개신교인은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34%)과 '성도 간의 교제'(25%)를 꼽았다.
- 새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장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어 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배 참여 독려가 요구된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생활에 어려운 점(상위 5개)



\*자료 출처: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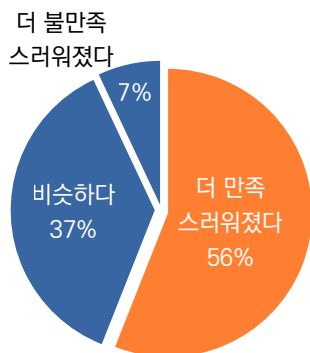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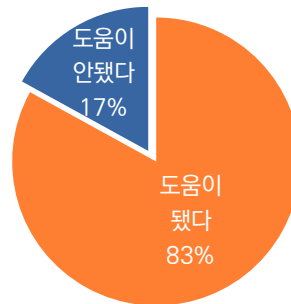
## 신앙을 가진 후, 삶의 만족도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워졌다' 56%!

-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절반 이상(56%)의 새신자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을 가진 후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러워졌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불만족은 7% 밖에 되지 않아서 신앙을 통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또한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데에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3%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신앙이 도움이 되었을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출석 전과 비교한 현재 삶의 만족도\*



[그림] 개인적 삶의 문제 해결에 신앙이 도움이 된 여부\*\*



\*5점척도 질문으로 만족과 불만 비율은 (약간+매우) 합한 수치임.

\*\*4점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거의+별로) 합한 수치임.



## 시사점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나 빌립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와 보라'는 권유의 말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회 이미지가 매우 낮아진 현재 상황에서 다짜고짜 '와 보라'는 전도방식은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지난 12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도 상황에서 전도자가 피전도자의 고민에 대해 깊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교회 출석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다.

이번 넘버스 122호의 결과를 보면 교회로 인도된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했다. 성경공부와 설교, 복음의 논리적 설명 등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신비스러운 경험 등 '영적 체험',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다른 사람의 간증 등 '상담적 요인'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공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을 중요시했던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성경을 중요시하므로 '성경공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공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새신자가 오면 몇 주간에 걸친 양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양육 과정이 끝나면 세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하거나 다른 성경공부를 하도록 한다. 또 구역/속회 등 소그룹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 나간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다. 소형교회는 인적, 물리적 조건의 한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월 예장통합교단에서 실시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추적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경공부를 실시하는 비율이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38%였는데,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20%로, 소형교회가 성경공부 중단율이 훨씬 높았다.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최소한 절반이 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는데에 성경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 결과 확인했는데, 따라서 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체계적 과정으로 설계하여 새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공부 과정은 새신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이 과정을 거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여러 명이어서 성경공부를 지도하거나 평신도 리더가 이끄는 그룹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소형교회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기독교 방송의 성경공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는 많은 양질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고 과거 방송했던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VOD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리적 성경공부, 책별 성경공부, 주제별 성경공부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목회자가 잘 살펴서 새신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법이다. 성경공부 방송 프로그램을 새신자가 교회에 모여서 혹은 개별적으로 시청하고 목회자가 이를 점검하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소형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 물리적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주로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님들이 많으므로 혹시라도 새신자가 그 목사님 교회로 옮기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성경공부를 새신자의 필수적 코스로 제공하는 것이 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한 길일 것이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 이후 미국 목회자 상황]  
미국 목회자 38%,  
지난 1년간 '전임 목회 그만둘까 고민한 적 있다'
2. [세계 9개국 환경 인식 조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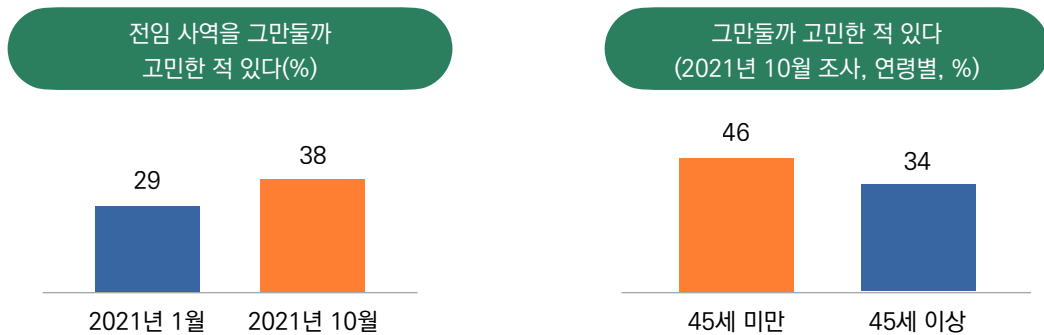
1. 코로나 이후 미국 목회자 상황



## 미국 목회자 38%, 지난 1년간 '전임 목회 그만둘까 고민한 적 있다'

- 미국 바나그룹이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의 38%가 지난 코로나19 이후 1년 간 전임 사역을 그만둘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조사때 29%보다 9%p가 증가한 수치이다.
- 특히 45세 미만 젊은 목회자들(46%)이 45세 이상 중장년 목회자(34%) 보다 그만둘 생각이 더 높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 바나그룹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목회로 인한 번아웃 현상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지난 1년간 미국 목회자의 전임사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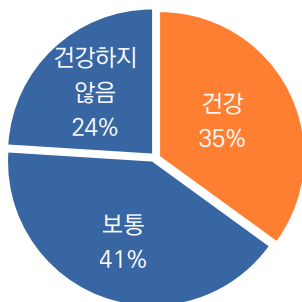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Barna Group, 2021.11.16., '38% of U.S. Pastors Have Thought About Quitting Full-Time Ministry in the Past Year' (2021년 1.22-27, 2021.10.12.28)

\*\*2021년 1월은 413명, 2021년 10월은 507명 목회자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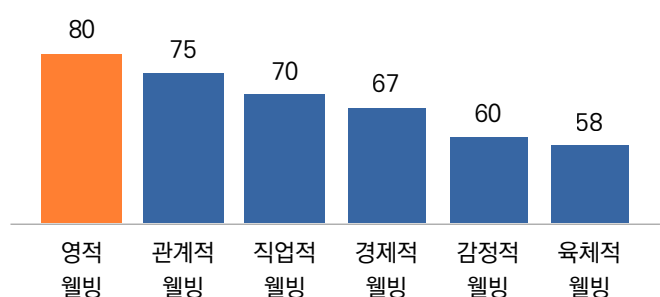
## ● 미국 목회자의 건강지수(6가지 웰빙지수 총합), '건강하다' 35%!

- 미국 목회자에게 6가지 웰빙 지수에 대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35%가 '건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41%, '건강하지 않음'은 24%였다.\*\*
- 6가지 상세 웰빙 지수별로 보면 '영적 건강함'이 80%(매우좋다+좋다)로 가장 높았고 '육체적 건강함'이 58%로 가장 낮았다.
- 전체적으로 건강지수가 낮은 목회자일수록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미국 목회자 건강 지수 (6가지 웰빙 지수 총합)\*\*



[그림] 미국 목회자의 6개 웰빙 지수별 건강도 ('매우좋다+좋다' 비율) (%)



\*자료 출처 : Barna Group, 2021.11.16., '38% of U.S. Pastors Have Thought About Quitting Full-Time Ministry in the Past Year'(507명, 2021.1.22.-27)

\*\* '건강'은 6개 지수 모두 '매우좋다+좋다'는 비율, '보통'은 6개 지수 중 3개 이상 '매우+좋다'는 비율, '건강하지 않음'은 6개 지수 중 2개 이하 '매우+좋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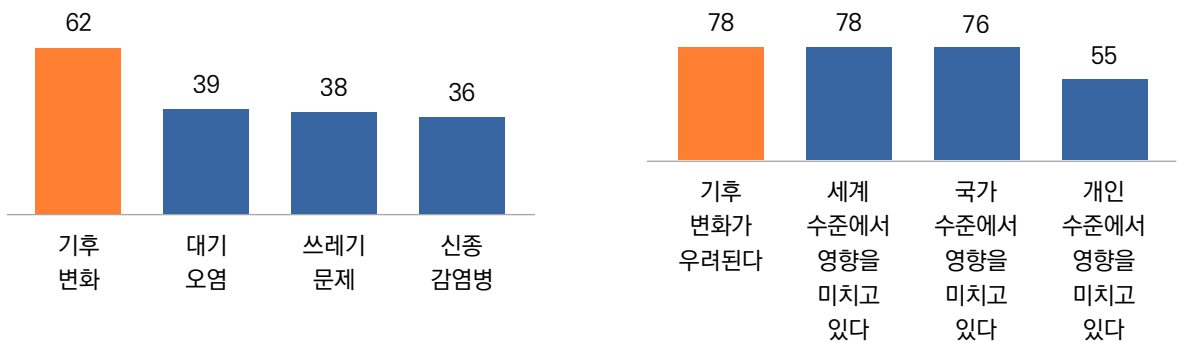
2. 세계 9개국 환경 인식 조사



## 세계 주요 9개국 국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문제는 ‘기후 변화’ 62%!

- 글로벌 조사기관인 칸타퍼블릭이 세계 9개 주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9개국 국민의 62%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대기 오염’ 39%, ‘쓰레기 문제’ 38%, ‘신종 감염병’ 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또한 기후 변화가 ‘세계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8%, ‘국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6%, ‘개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5%로 기후변화가 국가, 사회 뿐 아니라 개인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주요 9개국, 중복응답)      [그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우려 수준 (%)



\*자료 출처 : Kantar Public, '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 2021.1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 국가 당 1,000명씩 총 9,000명, 2021.9.22.-10.1)  
 ; 한겨레신문, 2021.11.08. "나는 잘하는데..." 기후위기 행동 세계인 인식조사 '너는 왜...'

### ● 나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정부, 미디어, 기업, 지역사회는 나보다 못하다

- 응답자 본인 포함 주요 사회적 주체들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응답자 본인의 경우 36%가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디어, 정부, 이웃사람, 중앙정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못한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13%로 매우 낮았다.

[그림] 지구와 환경 보호 행동에 대한 평가(10점 만점에 8-10점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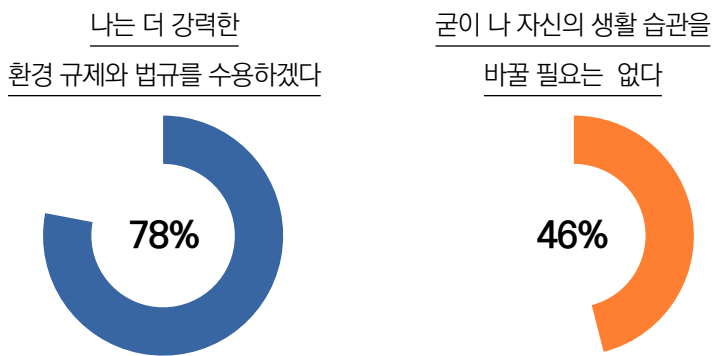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antar Public, '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 2021.1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 국가 당 1,000명씩 총 9,000명, 2021.9.22.-10.1)

● ‘환경 규제와 법규 수용하겠다’ 78%,  
그러나 ‘굳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 46%

- 환경 보존을 위해 78%가 ‘나는 더 강력한 환경 규제와 법규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해 더 높은 규제와 법규를 수용하는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에 반해 46%는 ‘나는 굳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응답해 규제와 법규 수용 의견과 달리 본인의 습관변화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 보존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세계인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그림] 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의 더 강한 규제와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Kantar Public, '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 2021.1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 국가 당 1,000명씩 총 9,000명, 2021.9.22.-10.1)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5호\(2021년 12월 1주\) - 대선 후보 지지도, 후보별 지지 이유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56호 \(2021년 12월 1주\) -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등](#)

[\[갤럽\] 진보층 줄고, 보수층 늘었다...“난 진보적” 37→22%](#)

한겨레\_2021.11.26.

사  
회

[65세 한국인 21년 더 산다...2000년 들어 5년 가까이 늘어](#)

동아일보\_2021.12.01.

[아이 없는 기혼여성 52% "앞으로 자녀 계획도 없다"\(종합\)](#)

연합뉴스\_2021.11.29.

[아이 10명 중 6명은 낮에 부모가 돌봐...육아부담 15년만에 최고](#)

연합뉴스\_2021.11.29.

[韓, 뇌물위험도 낮다 `194개국 중 21위`...日 18위·北 최하위](#)

이데일리\_2021.11.26.

[공공기관 이전 끝나니 다시 수도권으로...11만6천명 순유입\(종합\)](#)

연합뉴스\_2021.11.29.

일  
반

[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4.6%...OECD 8위](#)

연합뉴스\_2021.11.29.

[구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카카오 2위·네이버 3위](#)

조선비즈\_2021.11.30.

[사회적기업 5년 만에 83% 늘어 3천142개...종사자 60%는 취약계층](#)

연합뉴스\_2021.12.01.

[K팝, 북미 주류시장 안착...음반 수출 2억불 대기록 눈앞](#)

연합뉴스\_2021.12.01.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올해 87개 제작...등록 가상인간 186명](#)

연합뉴스\_2021.12.01.

청  
년  
-  
청  
소  
년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잘 배웠지만, 희망 없어”](#)

KBS\_2021.11.30.

[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 경험”](#)

경향신문\_2021.11.30.

기  
독  
교

[교회학교 교사·교역자·학부모 “코로나 후 학생 신앙 약해졌다”](#)

국민일보\_2021.11.30.

[아직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을 회복하는 8가지 열쇠](#)

뉴스파워(미주 한인 언론)\_2021.11.23.

[기획기사] 절반의 한국 -경향신문

1.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2021.10.06.
2. [설레며 대관령 넘던 여고동창들 “서울? 잡기 힘든 무지개”](#) 2021.10.08.
3. [수도권 아니면 버티기 힘든 구조…“학교 간 벽 허물고 뭉쳐야”](#) 2021.10.12.
4. [진료소장 혼자 492명 보는 ‘의료사막’…“시골 살아 죽으면 안 되잖나”](#) 2021.10.14.
5. [소각장·송전탑에 주민 신음…수도권 위해 희생되는 지방](#) 2021.10.19.
6.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조성만으로 역부족…연결 통한 ‘규모의 경제’로 새 거점 만들어야](#) 2021.10.21.
7. [한일 해저터널·가덕도 신공항의 이면…‘뭐든 해봐야 한다’ 비수도권의 절박감](#) 2021.10.26.
8. [혁신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늦었지만…지역 성장 거점 역할엔 ‘한계’](#) 2021.10.28.
9. [“성차별 보면 ‘못살겠다’ 싶은데 농촌은 좋으니 바뀌어야죠”…여성 청년들의 분투](#) 2021.11.02.
10. [돈·사람 ‘찔끔’ 내려보낼 게 아니라…살고 싶게 ‘균형의 틀’ 짜라](#) 2021.11.11.

\* 이슈 큐레이션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랐다”…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老동자](#)

경향신문\_2021.12.02.

[극단선택 줄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다시 위기 시작](#)

중앙일보\_2021.11.26.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가능인구 범위 20~74세로 늘려야](#)

국민일보\_2021.12.02.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볕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규,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중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미국 한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찬타임스가**  
지난 12월 1일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두 기관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알림

### 넘버즈 121호 미국 퓨리서치 조사 결과 해석에 대한 정정

이 내용은 미국 퓨리서치가 한국을 포함한 경제선진국 17개국 국민들에게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What Makes Life Meaningful?)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여 3개까지 응답을 받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퓨리서치는 응답을 20개 정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별 응답 순위를 각 국가별로 표로 제시하였는데 넘버즈에서는 그 표를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실제 결과 수치를 보면, '물질적 풍요' 19%, '건강' 17%, '가족/자녀' 16%의 순으로 '물질적 풍요'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17개국 평균(중위값)으로 보면 '가족/자녀'가 1위이고, 14개 국가가 '가족/자녀'를 1위로 응답했는데, 한국만 '물질적 풍요'가 1위여서 국내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서 보도했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응답률 1위(물질적 풍요) 2위(건강) 3위(가족/자녀)가 모두 표본오차율(±3.1%, 95% 신뢰수준)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위로는 물질적 풍요가 1위지만 통계적으로 1위, 2위, 3위가 모두 표본오차율 안에 든다는 것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으로써 '종교/영적생활' 응답과 관련, 미국만 15%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3%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개국 평균(중위값)은 2%이어서 1%를 기록한 한국을 최하위권으로 표현한 점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한 자료 해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